

### 제31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

- 지난 5월 30일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도 미래정책과 한황해팀 신현배 팀장, 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 기타 항일 독립운동에 관심 있는 각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그림1> 단체사진 및 박경철 박사 발표 사진

-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 이화림의 항일운동과 당시 그녀와 함께 했던 항일 운동가, 중국 내 관련 유적들을 소개했다.
- 이화림의 중국 내 항일운동은 “3.1혁명”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주로 상하이, 광저우, 난징과 타이항산지대에서 펼쳐졌다.
- ▷ 이화림은 3.1혁명 이후에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을 만났고, 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도왔다.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 사건 이후 독립운동이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자 광저우 중산대학 간호사과정에 입학했으나 1935년 윤세주의 연설을 듣고 감동 받아 난징으로 가서 항일운동을 계속 했다. 난징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 부녀국 의료보건의사의 책임을 맡았고, 김원봉, 윤세주 등과 함께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웠다. 난징대학살 이후, 일본군의 침략이 거세지자 조선민족혁명당과 함께 중경으로 이동하여 1938년에는 조선의용대를 창립하였다. 그 후 타이항산지구와 옌안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 ▷ 한국전쟁 시 조선인민군 위생소 소장으로 복무하던 중 미군의 폭격에 부상을 입고 심양으로 복귀했고 그 이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해방 후,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국장, 연변자치주 당대표 등을 역임했고 노년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1999년 2월 향년 95세로 삶을 마감하였다.
- 박경철 박사는 윤봉길, 김좌진, 한용운 등 충남 출신 독립 운동가들을 연

급하며 충남 출신 독립 운동가들이 대한독립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 또한 이들 외에도, 박헌영, 이현상 등 우리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충남출신 사회주의 독립 운동가들의 공헌 역시 적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 박경철 박사는 2010년과 2016년에 각각 북경대학 한국연구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회원들과 조선의용군 유적지들을 둘러보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소개했다.
- ▷ 호가장 전투지와 의용대원 묘지, 마전 팔로군 총사령부, 십자령 정상과 윤세주 열사, 진광화 열사의 묘지 등을 소개하였다.
- 박경철 박사는 마지막 순서에서 충남도에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 ▷ 충남도-허베이성 간 항일 역사 교류 추진, 여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의 역사 기념사업 등이 향후 충남도의 대중국교류에 있어 상당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발표를 마치고 [도율이 본 한국독립운동사] 제7부 “십자령에 뿌린 의혈”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7부에서는 윤세주 열사와 진광화 열사를 기념하며 십자령 전투와 조선의용대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는 충남의 항일운동 역사가 중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항일운동을 지역 간 외교에 접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 5년 동안 긴밀한 교류가 없었던 충남-허베이성 간 외교관계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박경철 박사는 밀양시 의열기념관 개관 소식을 전하면서 유관순뿐 아니라 충남의 다른 여성 항일 운동가들도 재조명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송두범 박사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바로 건립하는 것보다 하루 빨리 항일운동과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 도 미래정책과 한황해팀장은 대중국교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드갈등 이후 충남-중국 간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오늘 발표 내용을 향후 실무에서 활용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지명은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mailto:quanchfu@cni.re.kr))